

강하고 담대하라 -복음으로 여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1:1-8, 요한복음 16:32-33

정윤돈 목사님

오늘 아침에 1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여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20대 초반의 남녀가 술 먹고 테이트를 하다가 갈등이 생겼는지 싸웠던 모양이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쁜데 지나갈까, 남 싸우는 데 가면 되겠는가 했는데, 오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닌가. (웃음) 가서 이야기했다. 꾸짖으면서, 왜 젊은 사람들이 대화로 하지 폭력을 행사하느냐 했더니, 여자가 그러더라. “빨리 미안하다고 해. 네가 뭘데 나를 때리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지 않나. 내가 이야기했다. “내가 카메라로 다 찍어놓았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고 고발할 거야.” 그래서 화해하더라. 안 찍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 (웃음) 주일 아침부터 선한 거짓말을 했다. (웃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남자가 약한 여자를 때리고 욕하고 하는데, 필요 없는 일에는 담대하다. 그리고 연약하다. 여러분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약한 데 미련하라.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깊이 복음을 깨달았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미션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서론 :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모세가 있을 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다. 요단을 건너서 중부, 북부, 남부를 다 정복해야 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본격적으로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과 싸워야 했다. 여리고 같이 큰 성, 아이 같이 작은 성이 있는데, 다 싸움을 잘 한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강하고 담대하지 마라.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리다고,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반말부터 한다. 쓸데없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다.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까마득한 후배 전도사님에게도 꼬박꼬박 존대를 한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는 없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음적인 모습이 아닐까. 학교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다. 연약한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 왕따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의 정서, 시간,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복음을 알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녹아있다면 아내에게, 성도에게, 후배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녹아져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는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오시도록 겸손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을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다가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본론 : 신앙의 두 가지 단계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단계가 있다. 복음을 많이 듣는데, 복음 체질이 금방 되는가? 삶이 금방 되는가? 안 되지 않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해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가정에서 싸우고 시험에 들었는데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흔들린다. 구원과 복음이 체질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

님을 믿지만 어느 순간 걱정이 되고 두려워진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인가? 이방인인가?’ 이런 걱정이 될 수 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 두 단계를 나누고자 한다.

1.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이해하는 단계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런데 60만 명 중에 믿음으로 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뿐이었다. 그 기적을 보고도,

(1)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 이해했다. 다 이해한 것도 아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묵상하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이 복음소식 쓰는 것을 매일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있다. 매일 실천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복음을 암송해서 하는 것이다. 할머니가 앞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하면, 옆의 손자, 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램넌트들이 이것을 그랬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겠는가? 아니다. 10년, 20년 동안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고 한 가지씩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복음이 체질이 되어 있으면, 수십 배, 수백 배 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답은 쉽게 얻게 된다. 실수, 잘못 다 저지른 후에 ‘그래서 복음이구나’ 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쉽게 복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냥 암송만 하라고 하지 말고, 설명을 조금씩 해 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네 친구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서 싸우고 때리고 하고 있으니 행복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니가 너는 행복하지 않느냐.” 적용을 시켜줘라.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씩 이해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사단의 지배 하에서 우상숭배를 하며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더니 더 힘들어졌다.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어려웠다. 예수 믿고 보니 불편한 게 더 많다. 그런데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한다. 갈등이 더 많아졌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이다. ‘아, 하나님은 사단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구나.’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서 세상의 지배 아래 살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조금 고생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10제양과 유월절 사건을 보았다. 아마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 피를 바르면 재앙을 넘기시는구나. 그런데 이 피를 그렇게 뿌려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야,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신약에서는 직접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우리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복음을 더 깨닫게 될 것이다.

(2) 613가지 율법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많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율법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잘 못 지킨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주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죄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은 이것이다.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된다. 요셉이 그랬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교훈을 얻었다. “아빠가 나에게만 좋은 옷을 주었었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빠지고 다녔구나. 내가 형들이었어도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내가 형들이 상처 입은 것을 몰랐구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요셉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는데 요셉은 고자질을 하지 않았다. 깊이 생각한 것이다. ‘내가 과거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노예가 되었지 않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된 것이다. 복음 안에서 거듭나시기를 축원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총리가 된 요셉은 흠이 없었다. 일곱 램넌트,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면 흠이 하

나도 없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랬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흠도 티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체질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후대 속에서는 시대적인 인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3)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피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짐승을 드리는 제사로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오직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영원히, 확실히 해결된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성막과 제사 봉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2. 믿음으로 도전하는 단계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복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도전의 미션이 주어진 것이다. 아직 복음 체질도 덜 되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의 현장을 주신 것이다. 아직 영적 문제가 많은데 더 영적 문제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영적 문제가 합쳐진 아이가 태어난다. 지옥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복음 체질도 덜 되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라고 하신다. 영적 문제를 가진 수십 명이 있으니 전쟁터다. 거기에 도전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이 있다. 사업에, 전문성에,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하나되어서 도전해야 한다. 완벽해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다. 부족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다. 헌당에, 제1, 2, 3 RUTC에 도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붙잡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나는 됐으니까 끝’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끝’인 것이 아니다. 먼저 되어진 사람은 안 되어진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단계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다.

(1)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요한복음 19:30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다 아신다. 결국 천국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지만 자녀, 손자, 천 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 중에서 대통령, 장관, 의원이 나오고, 노벨상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수 년 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응답을 이미 받았다. 다 이루신 것이다.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 장애인들을 돌볼 때, 나는 부모님들에게 꼭 복음을 전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니까.”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은 장애가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장애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막상 가서 드디어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믿으시더라.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삶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초대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이미 다 이루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있는 문제는 허상에 불과하다. 실상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우상숭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복음소식을 계속 하는데, 권사님이 조선족 한 분에게 이것을 40일 동안 계속 하도록 했다. 대상자를 두고 복음소식을 그리게 했다. 40일 만에 상해에 있는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상을 다 없앴다. 하지만 빼고 다 없앴다.” 재물 주는 우상은 못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것까지 버리라고 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겨우 버린 것이다. 운명, 시주팔자, 날짜, 방향, 이것 앞에서 담대해야 한다.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제사, 귀신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2)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요한복음 16:33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경제문제, 가정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욕하고 부인 때리고 하지 마라. 강해야 참는다. 약해서 못 참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직장 문제 앞에서, 사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자산이 0인 게 얼마나 부자냐.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 아니냐.”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3)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맞다’ 하게 되면, 60만 명이 다 반대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갔더니 되어지는 것을 몇 번만 자녀가 봐 버리면,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다.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다. 칼도 방패도 갑옷도 없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나라를 구했다. 이 축복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주님은 바울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했다. 사도행전 23:11에,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에게도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겠는가? 새 현장에 도전해야 하니까 인간인지라 두렵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한다. 사도행전 27:24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결론 :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수아처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는가?

(1) 상처입은 개인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명자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했다. 바울에게,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했다. 하물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는 어땠겠는가. 연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욕을 한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 미워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연약하니까 기다리지 못한다. 부부싸움을 해야 한다. 자녀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꾸짖고 율법으로 행한다. 연약하니까 부모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일어나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도전이 필요하다.

(2) 가정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문제, 가정문제가 심각하다.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 지옥 같다. 더 두려워만 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에 속고 있는 세상을 살려야 한다. 하나님 모르면 자기 중심, 이권 중심, 성공 중심이 정답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나. 최선이 아니지 않나.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4) 무속, 우상, 점술 문화에 전 세계가 빠져 있다. 선진국은 3단계로 인한 문제가 와 있다. 후진국은 우상과 미신으로 인한 문제가 와 있다. 복음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개인과 가정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성도와 후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너무 크오니, 주께서 함께 하사,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천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